



### 坡州 交河面の 支石墓

金 武 龍

構成의 手法을 떠나 一石化하고 있음에서 미루어 더욱 層級이 增加될 수 있을 것인 지 또는 擦孔等이 없이 相輪部가 安置된 것인 지 再調되어야 할 것이다. 이 塔은 일찌기 倒壞 再建된 것으로 推定되는 바 그것은 各層屋 蓋面에 人名等이 陰刻되고 있음에서 더욱 그러하다. 그 中二層에는 「成 曾發 字魯賢 號靈山 崇禎二百三年 庚寅三月日」(朝鮮 純祖三十年) 이라고 하 었는데 寺院重修의 功德으로 因緣된 記刻인 듯도 하다. 實測値는 總高 一m九五 地臺石 幅 一m八三—一m六五 下蓮臺石 七三·五cm 第一層屋蓋 六五cm 第九層屋蓋 三·八cm 로서 遞減率이 적으나 安定感을 보이는 바 비 獨完形은 아니나 稀貴한 靑石塔의 遺例로서 保存되어야 할 것이다.

註

- ① 長項線으로 溫陽 다음인 新昌驛에서 西北方約十里 『생활』을 지 나 靈仁山 中腹에 南向하였다.
- ② 金正基·靈山法華庵의 靑石塔(本誌 一卷三號 一九六〇年十月)

坡州郡 交河面靑石 國民學校 校 西南方約二〇〇m 地點 에 支石一基가 있다. 이 支石은 現在 蓋石만 露出되고 足石은 埋沒되어 있어 構造 에 對하여 알지 못하는 유감 이다. 蓋石最長 四·四五m 最短 三·一m 厚 六〇cm의 不定橢圓型으로 된 이 支石墓의 立地條件은 漢江沿岸 丘 陵上에 있으며 方向은 南向 을 取했고 型式은 南方式으로 推測된다. 또 交河里支石

의 實測을 보면 蓋石 最長 三·四m 最短 一·八m 厚 五〇cm 足石은 現在 一個간 倒壞되어 있으며 足石 高 七〇cm 幅 三〇cm 로서 原來의 支石 高 一·二m 以上이며 方向은 大略 南向을 取하고 있으며 型式은 北方 式임은 分明하다. 以上の 支石以外에 同校 崔正淳氏에 依하면 同面 木洞 里와 條里面 努造里에 도 各各 一基씩의 支石墓가 있다고 한다. 지금까지 發見된 支石墓들은 臨津江沿岸에 分布되어 있는데 이 交河面の 支石墓는 漢江下流南岸에 있으며 坡州郡 支石墓分布上 새로운 資料라고 하겠다.

#### 考古美術 卍—스

◎ 義城古墳 發掘完了

國立博物館에서는 지난해 十一月末부터 慶北 義城郡 塔里 所在 三國時代 古墳 에 對하여 發掘調査를 實施하여 오던 바 해를 넘겨 今年 正月 三日로서 復舊作業 까지 完全히 끝마쳤다고 한다.

發見遺物로서는 從前에 볼 수 없던 特異한 形式의 金銅冠이 出土하였으며 古墳 의 内部構造에도 特殊한 點이 많아 古代墓制 研究上 도움이 될 바 되지 않나 하 니 그 報告書 刊行이 크게 期待된다.

◎ 國寶石塔의 修理

昨年 十二月에 左記 京畿道所在의 國寶 三塔의 修理가 이루어졌다.

(1) 安養 中初三層石塔(國寶 七호)·寺址에 工場이 設置됨에 따라서 이 石塔 은 幢竿(國寶 六호) 北方으로 移建되었는데 單層基壇으로 判明되었다. 尹武炳氏 監督으로 基壇中石 一枚가 新補되었고 二、三層屋蓋는 塔身을 찾지 못한 채 復元 되었다.

(2) 驪州 高達寺址浮屠(十五호)·兩次에 질친 塔內藏置의 盜取行爲로서 傾斜된 塔基部가 復舊되었고 後面에 石築으로 土砂의 流下를 防止케 되었다. 工事時 黃 壽永氏가 現場을 調査하였는데 塔前方에서 長矩形拜禮石(各面에 眼象)이 發掘되 었으며 其他 八角臺石 一個와 兩石柱도 整備되었다.